민주 대규모 장외집회…“민생파탄 지속되면 2·3차 집회”

임시국회 개회따라 여론 추이 주시…주말 거리투쟁 상시화 목소리

지도부, 이재명 ‘경청투어 국민보고회’ 겸해 경기서 추가 집회 고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거리 투쟁’에 나설지 주목된다. 당내에서는 이번 장외집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는 평가를 근거로 장외 투쟁을 이어가며 ‘정권 규탄’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169석 거대 야당의 투쟁 방식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월 임시국회가 개회한 데다 대정부 질의 등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장외 투쟁은 여론의 흐름에 따라 이달 중순께나 다시 검토되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지도부는 추가 장외집회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지만, 지지층 여론 추이에 따라 다시 ‘광장’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숭례문 집회를 두고 당 내외에서 말도 많았지만, 현장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민생 파탄과 검찰의 야당 탄압이 계속된다면 2차, 3차 집회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지도부 중 강경 성향 인사들은 아예 ‘주말 장외집회’를 당분간 상시화하자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근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주경야독하는 심정으로 주중 5일은 국회에서 일하고, 주말은 국회 밖에서 국민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전날 집회에서 “역풍을 걱정해서 오늘 집회에 나오지 않은 민주당 인사들을 두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며 “이 정권의 표적수사가 진실이라면 역풍은 없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가 전국을 돌며 진행 중인 ‘경청투어 국민보고회’를 겸해 경기 지역에서 추가 장외집회를 열지 고심 중이다.

하지만, 장외투쟁이 오히려 ‘이재명 방탄용’ 오해를 가져와 여권에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 적지 않다. 거대 야당이라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장외 투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리하게 장외 투쟁에 나섰다가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국회 밖 무력시위’로 비치면서 중도층이 돌아서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친이재명계 핵심인 정성호 의원조차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외투쟁이라고 하면 소수당이 국회 내 문제해결 방법이 전혀 없을 때 하는 것 아니냐”며 “이걸 계속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장외투쟁에 대한 날 선 발언들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방탄 프레임에 이어 대선불복 프레임에 걸릴 수도 있다”, “강성 지지층에 당이 휘둘려 거리로 나서선 안 된다” 등 노골적인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가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결정한 이후의 정국 상황에 따라 장외 투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2차 검찰 출두 이후에 장외 투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2월 임시국회와 대정부질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소한 이달 중순 이후에나 장외 투쟁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단기간에 바로 잡혀질 성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장외집회를 서두르기 보다는 좀 더 민심이 결집되는 것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만큼 원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장외로 나서야 민심이 호응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무대에 올라 정부 규탄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나는 짓밟아도 민생은 짓밟지 말라”

민주, 검사독재 장외 규탄대회…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 참석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당 주최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경고한다. 이재명은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검찰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치의 자리를 폭력적 지배가 차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전쟁(대선)에서 진 패장의 삼족을 멸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조언을 위로로 삼겠다”며 “국민의 피눈물과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는 어려움이 무슨 대수겠느냐. 역사적 소명을 뼈에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도 위기다. 난방비 폭탄이 날아들고 전기요금도, 교통비도, 대출금 이자도 오른다”면서 “국민은 허리가 부러질 지경인데 은행과 정유사들은 잭폿을 터트리고 수익을 나누는 파티를 즐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양극화와 불평등을 삼척동자도 아는데 윤석열 정권만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장외집회에 앞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에도 참석했다. 그는 추모제에서 “참사의 온전한 치유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평범한 유족을 투사로 만드는 이 정권의 무책임하고 비정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천공’·‘김건희 의혹’ 등 화력전 예고

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송갑석·이용빈·이개호 의원 참여

임시국회 개막 나흘 만인 6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사흘간 진행된다.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 기간 정부를 상대로 맹공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이에 따른 임시국회 ‘방탄 논란’을 부각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설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2월 임시회 소집 요구를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극대화 전략을 짜고 있다.

검찰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에 체포동의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고, 이에 앞서 ‘방탄’ 논란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과 그의 검찰 진술 등을 고리로 이른바 ‘이재명 게이트’의 실체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면서 여론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원내 관계자는 5일 “거대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제어할 수단은 없다”며 “다만, 민심이 심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개 분야 대정부질문자에 초선과 원내부대표단 소속 의원들 위주로 전진 배치하며 대대적 공세를 벼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물증이 나올 경우 ‘제2의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도 한층 올릴 방침이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송갑석(서구갑)·이용빈(광산갑)·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개특위, 선거구제 개편안 토론

1박 2일 워크숍…소선구제 폐해·비례대표제 등 논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5일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열고 선거구제 개편안 등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정개특위 여야 위원 17명이 전원 참석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워크숍 장소를 방문해 인사말을 했다.

정개특위는 ‘밤샘 토론’을 통해 각 당이 기존에 발의한 여러 선거구제 개편안을 논의하고, 두세 개의 복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주로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논의하고, 비례대표제 또는 중대선거구제 강화 등을 다룰 방침이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정개특위 위원은 “각 당이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소선거구제로 논의를 시작하고, 이후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 등으로 보완 방법을 마련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이달 말까지 복수의 안을 마련하고 선거법 개정시한인 오는 4월 10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상가매매 (상무지구.유흥적합) (임대가능)

▶ 중심 상업지구
▶ 유흥가능 (전용 100평)
▶ 시세 – 10억
▶ 급매 – 7억 (융4억)

(보4천 ,월수익 400만)

010-6670-9800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
	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동구 금남로 (주택) ▶ 감정가 2억5천만 → 최저가 1억1천
	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3억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 → 최저가 16억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4억6천
	서구 풍암동 (근린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5천
	북구 오치동 (주택)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2억1천

010-2614-9801